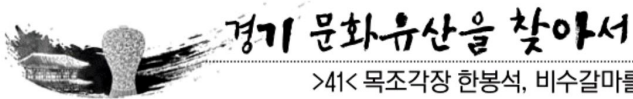


제석천 형상 새기는 ‘佛道의 조각칼’



경기 문화유산을 찾아서

>41< 목조각장 한봉석, 비수갈마를 꿈꾸다

불교도를 장엄하는 ‘하늘의 장인’, 비수갈마(毘首羯摩)를 꿈꾸는 장인이 있다.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49호 목조각장(木彫刻匠) 한봉석 장인이 바로 그다. 그는 불교조각을 통하여 부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불도(佛道)를 전하고자 애쓰고 있다. 아울러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전통문화에 몸담고 있는 장인들이, 척박한 여건 속에서 생존할 수 있는 길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그들 장인들이 사회적으로 대우 받지 못하는 현실을 타개하고자 힘쓰고 있다.

그는 불교미술 전승 작가 15인으로 구성된 ‘나우회’를 2010년에 결성하고 지금까지 회장직을 맡고 있다. 그는 이모임을 통해 ‘성보(聖寶)를 지키지 못하면 불교 문화도 없다’는 각오로 매년 불교조각전을 어렵게 이어오고 있으며, 어르신들 위한 전시회도 개최해 사회공헌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2014년부터 해외 반출문화재를 대상으로 한 재현작업을 시도해, 해외 반출문화재에 대한 사회 각층의 관심을 유도하고 환수운동에 힘을 보태고 있다.

그가 목(木) 조각가의 길로 들어선 것은 1972년. 1958년에 출생했으나, 남들보다 훨씬 어린 나이에 입문한 셈이다. 조선 불교미술 맥을 잇는 최고의 화승(畫僧)들인 보응·일섭·우일스님의 손자 뻘인 그는, 1994년 불교미술대전에 입상

15세부터 불교미술 화승 맥 이어 삼존불·목각탱등 다수 제작·재현 제작·영상 기록 없어 ‘지원 시급’

해 불교조각가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2004년에 불교미술대전에서 특선했고, 2006년 문화재청 공로상을 받았으며, 2010년 경기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그의 대표작은 원주 구룡사 대웅전 삼존불과 단집, 예산 수덕사 금강역사상, 서울 관악산 성주암 삼존불과 후불목각탱, 서산 서광사 삼존불과 천불상, 영천은해사 사천왕상 등이다. 아울러 그는 일본 교토고려미술관 소장 목조 아미타삼존불감, 호림박물관 소장 목조

아미타불감, 남양주시 흥국사 석가삼존 불 광배 등을 재현했다.

그의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인데, 지금은 충북대학교 문화재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동 대학원 문화재학과 의 겸임교수다. 이처럼 그가 학력과 명예를 얻고자 한 것은 평생 다뤄야 할 목재의 성질을 제대로 알고 불교조각을 제대로 배우고자 하는 학구열, 새로운 영역에 진입해 기여와 이룬을 접목코자 하는 도전정신, 장인을 제대로 대접하지 않는 기존 학계에 대한 반발심 등이 작용했을 듯하다. 그는 실천하는 장인이며, 부당한 현실에 순종하지 않는 비판적 예술가임이 분명하다.

그가 불교조각가의 길로 들어선 지도 어언 45년째이고, 그의 나이도 이미 50대 후반이다. 그런데도 그는 지금 자기 소유의 작업공간이 없다. 돈 되는 일이나 니니 문화생도 한둘에 불과하다. 몸을 다쳐도 재해보상을 받을 수 없다. 무형문화재로서의 그의 삶과 작품을 접할 수 있는 소개 책자 하나 없으며, 그의 예술 세계를 다룬 영상기록물도 전무하다. 시도 지정 인간문화재인 장인에 대한 지원과 배려가 이렇하니, 다른 장인들의 삶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생존의 길을 열어주며, 그들의 기예를 국가적,



남양주 흥국사 대웅보전 목조광배 재현작품. /경기문화재단 제공

사회적, 문화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심하게 고민할 때이다. 그들을 잃음은 전통문화의 맥이 끊겨 역사를 잃어버리게 되는 국가적 손실이요, 궁극에는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전통 문화자산을 잃는 것이기 때문이다.

